



23년간 13만4천여 권의 고서를 모아 자신의 호를 딴 '화봉 책박물관'을 개관한 여승구 관장의 책사랑은 가족사랑만큼 애타하다.

오래된 책향기로 역사·문화·삶을 배운다

고서 모아 박물관 연 여승구 씨



여승구 관장은 일일이 포장을 씌워 귀중본을 소중히 관리한다.

1983년 '서울 북페어 행사' 개최 후 고서 모으기 20여년 고서(古書)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달려가는 고서 전문 수집가 여승구 화봉 책 박물관장(68). 그는 1965년 학비를 벌기 위해 고서적 전문점 '광명서림'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책과 인연을 맺었다. 이후 83년 국내 최초로 '서울 북페어 행사'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고서를 모으기 시작했다. 우리나라 고서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사라져 가는 게 안타까워서였다. 23년간 고서를 수집한 끝에 드디어 지난 10월 15일, 그간 모아온 13만 4천여 권의 고서로 자신의 호를 딴 '화봉(花峰) 책 박물관'을 개관했다. 고서적을 모아 인쇄·조판 기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다. "고서 수집을 시작한 이후 책을 찾아 도쿄, 마드리드, 파리 등 안 가본 도시가 없을 정도"라는 여 씨는 "화봉 책 박물관은 그동안의 결실"이라고 했다.

밀수품으로 오해 세관에 압류 당하기도

83년 당시 해외에 있는 한국 고서적을 찾아 여행하던 여 씨는 일본 오사카의 한 고서점에서 <천로역정(天路歷程)> 한국어 초판본을 발견했다.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된 서양소설인 동시에 원근법을 사용한 김중근의 삽화가 들어있어 자료사적 가치가 충분한 책이었다. 여 씨는 "제대로 된 문건을 만났다"는 생각에 120만엔(한화 약 1200만원)을 외상으로 갖고 책을 구입했다. 그러나 이 <천로역정>은 김포세관을 통관할 때 밀수품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서 압류 당했다.

당시 김포세관장까지 만나 "우리나라 책을 들여오는데 무슨 밀수란 말인가"라고 간곡하게 설득도 해봤지만 책은 결국 일본으로 되돌아갔다. 이 당시의 상황을 여 씨는 "돈이 없거나 책이 없어서

가 아닌, 폐쇄된 사회구조 때문에 생긴 일"이라고 설명한다. "한 나라의 문화재는 국제간 교류를 금지하고 제한법을 만든다고 해서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규제를 낮추고 문화재를 더 많이 접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죠."

그는 "문화재는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, 그 문화재를 더 사랑하는 모두를 위한 것"이라고 말했다. 가족들에게 '책 사는데 돈을 다 써버린다'는 원성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사재를 털어 고서를 모아 박물관을 세운 이유이기도 하다. 여 씨가 박물관을 세울 수 있었던 데는 불자인 부인 황선(64·경희대 음악대학 학장) 교수의 힘이 가장 컸다. 황 교수는 가족사랑보다 책사랑이 더 큰 것(처럼) 보였던 여 씨에게 불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인쇄하며 곁에서 지켜봐 준 든든한 정신적 후원자다. 황 교수는 지난 10월 28일 수원포교당에서 열린 나혜석 추모음악회를 기획하기도 했다.

佛經은 우리 인쇄·판화사의 산증인

고서를 수집하면서 여 씨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우리나라 책의 발자취와 인쇄발달사를 보여주는 고화자·고판화·고지도 영역의 인쇄본들. 덕분에 여 씨의 고서 컬렉션 중 7천여 권을 차지하는 조선시대 활자본과 약 500편의 고지도 등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. 고인쇄술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불경(佛經)도 1천여 권 가량 소장하고 있다.

"불교가 우리나라 인쇄술에 끼친 영향은 막대합니다. 부처님의 말씀은 글로 전하는 과정에서 인쇄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. <팔만대장경>이나 <직지>가 바로 우리나라의 찬란한 인쇄 발달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."

그는 또 불경은 우리나라 판화의 발달사에도 맥을 같이 한다고 언급했다.

"불교경전 속에 등장하는 '변상도(變相圖)'처럼 정교하고 아름다운 판화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<부모은중경> 등의 경전에서도 판화가 등장하는데, 이는 조선시대 판화사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."

여 씨가 밝히는 불교경전의 사료적 가치는 이 뿐만이 아니다. 다른 고서들과는 달리 불경은 특이하게도 책 뒤에 책을 편찬하게 된 이유와 시기, 편찬한 장소를 비롯해 시주자, 화주자, 각수(刻手)까지 소상하게 밝혀 놓기 때문이다. 이 기록들은 책이 편찬된 시대상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.

관심과 중요성 깨닫는 것이 문화재 지키는 길

"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인쇄술의 의미가 각별합니다. 금속활자가 발명되고서야 비로소 책을 싼 값에 널리 보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. 넓게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으로 서양 민주주의의 씨앗이 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한 나라의 책 역사와 인쇄술은 문화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자태가 됩니다. 현재 독일 마인츠에는 구텐베르크 박물관과 함께 박물관 부설 인쇄대학이 설립돼 있습니다. 그러나 그보다 200년 앞서 금속활자를 발명한 우리나라는 그간 제대로 된 고서박물관 하나 없었습니다."

그는 인쇄출판 문화는 우리 민족이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대국들의 외침과 약탈로 고서들이 유실되어 버린 점을 안타까워했다. 또 그나마 남아있는 고서 또한 일반인들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제대로 보존되고 있지 않아 더욱 안타깝다고 말한다.

'화봉 책 박물관'은 일반인들의 '고서는 딱딱하고 재미없다'는 편견을 지우는 한편 소중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여 씨의 노력이 배어있다. 박물관 한 쪽에는 고인쇄체합설도 설치해 놓았다.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 관

람객들이 직접 목판에 먹을 묻혀 인쇄를 해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인쇄술이 무엇인지 깨닫길 바라는 마음에서다.

"결국 우리가 우리 문화재를 더 사랑하는 것만이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. 이번 고서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고서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하는 게 제 작은 바람입니다."

글=이은비 기자 · 사진=박재원 기자



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

禪 너는 누구냐

선원장 스님들의 사자후

2004년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,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'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대법회'에 초청된 선원장스님 11분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특별법문을 엮은 『禪 너는 누구냐』

선 수행 현장에서 실참실수하고 있는
조계종 선원장 스님들이 알려주는
'참선, 어떻게 할 것인가'



- 고우 스님 (봉화 각화사 선덕) - 선의 본질과 의미 ■ 무어 스님 (봉화 죽서사 주지) - 화두 드는 법
- 대원 스님 (광주 학림사 오동선원 조신) - 선과 깨달음 ■ 함주 스님 (보은 법주사 총지선원장) - 마음은 무엇인가
- 현산 스님 (구례 화엄사 선동선원장) - 비우고 쉬는 공부의 선 ■ 영진 스님 (전주 조계종 기초선원장) -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
- 지환 스님 (조계종 기본선원장) - 선 수행의 요체 ■ 혜국 스님 (충주 석종사 선원장) - 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
- 현홍 스님 (충북 버들리 육조사 주지) - 한국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■ 도현 스님 (하동 생계사 금당선원 선덕) - 선 스스로 만드는 행복
- 설경 스님 (덕숭총림 수덕사 수좌) - 단박 깨침이란 무엇인가 ■ 특별법문: 법정 스님 (조계종 총무원장) - 경허·만공 선사들의 가르침

신국판 / 288쪽 / 값 9,000원 / 현대불교신문사 역음
www.yosiamun.com 총로구 견지동 110-33
Tel : 02)737-0695 Fax : 02)737-0696



어서아문